

3분기 전기요금 동결...“국민부담 고려”

한전, 연료비조정단가 5.0원 유지

강경성 “국민부담 고려, 쉽지 않아”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고물가에도 40% 가까운 전기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자,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 당 5.0원으로 결정,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 차이에 변환계수를 적용

해 산출한다. 실적연료비란 지난 3개월 동안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BC유 등의 무역통계가격 평균 가격을 말한다.

한전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16일 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하며, 산업부는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이를 바탕으로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을 검토한 뒤 당장 협의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부 산하 독립기구인 전기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전기요금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다 보니, 최근 이를 결정할 때마다 한번 씩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한 달여 지연됐던 앞선 전기요금 결정 때와 달리 이번에는 관계 부처 등 사이에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전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적자 44조원을 기록했다. 여전히 적자를 해소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이은 인상으로 발생한 국민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6.9원, 3분기 5원, 4분기 7.4원에 이어 올해 1분기 13.1원, 2분기 8원 등 연이어서 인상하면서 40원이 넘는 수준이자 약 39% 인상됐다.

올해 인상은 지난해 말 산업부와

한전이 추산한 인상요인 516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연이은 인상과 고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3분기에도 추가 인상은 것은 부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앞서 추산한 인상요인이 달라졌을 것으로 봤다.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지난 14일 취재진에게 “그동안 정부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이 줄었다”며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 자료를 살펴봐야겠지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동결을 시사한 바 있다. /뉴시스

LH 선운2지구 상업 용지 등 무이자 공급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자족시설·주차장 용지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21일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36필지와 상업시설용지 2필지, 주차장 1필지, 자족시설용지 1필지 등 총 40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36필지는 추첨방식, 상업시설용지와 주차장용지는 입찰방식으로 각각 공급한다. 자족시설용지는 이날부터 선착순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제외하고 자족시설, 상업, 주차장 용지는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했다.

선운2지구는 광주 광산구 선암동·운수동·소촌동 일원에 39만 8000㎡ 규모로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다. 총사업비 3033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1월 착공했으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근린공원 옆에 조성되며 69~87평에 평당 380만~480만원 선이다.

상업 1블록 면적은 4394㎡로 입찰 기준액은 193억원(평당 1455만원)이다. 상업 2블록은 4607㎡로 197억원(평당 1415만원)이다.

주차장은 972㎡, 입찰 기준액은 12억원(평당 417만원)이며 자족시설용지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을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4418㎡, 입찰 기준액 80억원(평당 602만원)이다.

입찰·추첨 신청은 27일, 추첨은 28일이며 유찰된 토지는 30일 오후 4시부터 선착순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권형안 기자



농협, 명품 한우 불고기 1+1행사...25일까지
농협경제지주는 전국 4500개 농·축협 나로마트와 축산물판매장에서 등심 및 불고기·국거리를 할인하는 ‘한우 더 내림, 더 드림’ 행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의 일환으로 22~25일 나흘 동안 진행된다. /뉴시스

올해 빛낸 광주·전남 중소기업인 64명

석탑산업훈장 (주)승진엔지니어링 정철섭 대표이사

산업포장 (주)대창식품 정현택 대표이사 등 유공자 포상



올해 34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석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1명, 국무총리표창 7명 등 총 64명이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본부에 따르면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주)승진엔지니어링 정철섭 대표이사는 여수에 소재한 석유화학 기계장치 제조업체로 33년간 업계에 종사하며 특허개발 등을 수입에 의존하던 석유화학 기계부품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전남대 등 지역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산업포장을 받은 (주)대창식품 정

현택 대표이사는 50여년간 김가공업계에 매진하며 지역에서만 통용되던 돌김을 최초로 상품화하고,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 미국유기농 인증 획득을 통해 지역 전통식품인 김의 수출화 및 품질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샌도리 박문수 대표이사, ㈜죽안에프앤씨 신경호 대표이사, ㈜신흥정기 이계하 대표, ㈜로우키본 이철대표, 주식회사 신아에이치에스 정현석대표, 주식회사 코인즈 최명호나 대표이사, 광주전남제주기계공업협동조합 김재실 전무이사 등 7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표창은 11명이 받았다. /권형안 기자

광주전남중기청·한전KDN, 소공인 등 지원

백년가게·소공인에 포장패키지 및 온라인 판로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한전KDN은 협업해 2019년부터 광주·전남지역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40여개의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전통시장 점포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 SNS를 통해 홍보하는 사업을 했고, 올해는 작년 수혜업체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참여업체들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장패키지와 온라인 판로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전남지역 백년가게·소공인과 2019~2022년 소상공인·전통시장 홍보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이고, 신청업체 중에

서 4곳을 선정해 각각 1000만원 상당의 포장패키지를 지원한다. 이후 제작된 상품은 광주·전남 공공배달앱(광주 위메프, 전남 먹깨비)에 입점시켜 판매하고, 10월에는 ‘소담스퀘어 in 광주’에서 운영 중인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신청은 6월 20일부터 7월 3일 오후 5시까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받고, 요건검토 후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홈페이지(www.mss.go.kr/site/gwangju)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조종대 광주중기청장은 “코로나 19 이후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장수 소상공인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백년가게, 백년소공인들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포스코홀딩스-LG전자 안전·스마트 제조현장 구축

포스코홀딩스는 LG전자와 로봇, 인공지능, 무선통신기술을 적용해 지금의 스마트팩토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인공지능 센싱 기술을 결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제조라인 내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설비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무선통신기술을 통한 실시간 제어로 공장의 제조 및 물류 효율을 높이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 확보에 협력한다.

양사의 제조공장은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하는 등대공장에 선정되는 등 스마트팩토리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포스코는 2019년에 국내 기업 최초로 등대공장에 선정됐다. 당시 WEF는 포스코가 생산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대학,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함께 △스마트 고로 △도금량 자동 제어 기술 △압연 하중 자동분배 등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해 고유의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LG전자의 창원 LG스마트팩토리 및 미국 테네시 공장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 LG전자는 이들 공장에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로봇 기반 공정 자동화 등 첨단 제조 기술을 대거 접목한 지능형 자율공장을 구축했다. /광양·주순의 기자

기아 EV9 1호차 주인공 ‘롯데렌탈 최진환 대표’

최진환 대표 “프리미엄한 경험과 높은 만족감 줄 것이라 확신”



기아는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 1호차를 최진환 롯데렌탈 대표이사 사장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아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고객 중심의 편의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는 최 사장이 EV9 이미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해 1호차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 사장은 “오랫동안 혁신적인 플래그십 전동차 SUV를 기다려 온 만큼 EV9이 프리미엄한 경험과 높은 만족감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구매 이유를 밝혔다.

EV9는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두 번째 모

델이다. 99.8k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기아 전기차 라인업 중 가장 긴 501km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달성했다.

편의 사양으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2) ▲정전식 센서를 활용한 스티어링 휠 Grip 감지 ▲클러스터·공조·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를 매끄럽게 이은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 ▲듀얼 칼라 엠비언트 라이트 ▲1열 릴렉션 콤포트 시트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윈드실드·1열·2열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 ▲10 에어백 등을 적용했다.

기아 관계자는 “EV9 사전계약에서 개인 고객 비중이 60%에 달할 정도로 프리미엄 전동차 SUV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개인 고객 중 55%는 기아 브랜드를 처음 선택한 신규 고객으로, 브랜드 재구매율이 높은 기존의 플래그십 시장을 EV9이 새롭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주력산업 일자리 네트워크 출범

광주상위서 4개 산업군 네트워크 구성

광주상공회의소는 21일 광융합·가전·스마트 뿌리산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력산업 일자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력산업 일자리 네트워크는 지역 일자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택캐리어(주), (주)우리리, (주)우성정공 등 산업계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광주시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테크노파크 등 지자체 및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들까지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상위서는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고용현안에 적합한 이슈 발굴 및 고용 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광융합·가전·스마트 뿌리산업 ▲모빌리티·반도체 ▲인공지능·데이터 ▲에너지·메디컬스캐어 등 크게 4개 산업군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 2대 기반산업인 광융합·가전, 스마트 뿌리산업과 관련된 기업 실무자들이 대부

분 참석해 산업전환에 대한 지역 기업의 대응 상황과 정부, 지자체 차원의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저탄소,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전환으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산업전환과 함께 최대한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나아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조병 협력사업본부장은 “주력산업 일자리네트워크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전환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광양농협, 농촌 일손돕기 적극 ‘동참’

매실 수확량 감소·가격하락 등 어려움 겪는 농가에 큰 힘



광양농협이 매실 수확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매실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적극 매실수확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허순규 조합장을 비롯한 광양농협 임직원과 여성대학 총동맹회 행복나눔봉사단,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임직원, 사회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관내 20여 매실 생산농가를 지원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매실생산량 감소와 가격하락 등

으로 농가의 유상 인력 고용이 힘든 실정으로 봉사활동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지원을 받은 매실 생산 농가는 “광양농협에서 매년 봉사활동을 해 줘서 너무 고맙고 큰 힘이 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허순규 조합장은 “앞으로도 광양농협은 필요인력 지원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봉사활동 등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수익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주순의 기자